금주의 법구–〈증일아함경〉
길잡이 소가 바르게 가면
뒤따르는 소도 모두 바르게 가니
길잡이 소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8월 6일)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지성불교 산실 〈불교평론〉 20돌 맞다

'탈종교화 시대, 불교' 주제 20주년 심포지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계간 〈불교평론〉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8월 30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99년 겨울 '용수나 세친, 원효나 의상이 해석한 불교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세계가 불교를 향해 끊임없이 던져오는 새로운 질문에 응답하겠다' 며 첫 발을 디딘지 20년이다.

〈불교평론〉은 그동안 기존 불교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시대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다룬 기획만 1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번 기획과 특집을 통해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고민했다.

'20세기 한국 불교의 회고와 반성' 을 주제로 창간호를 낸 후 〈불교평론〉은 '기복(祈福) 불교' '대승불교 정체성' 등 불교계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와 함께 생명, 환경, 명상, 젠더 등 시사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불자 지식인뿐만 아니라 이웃종교계의 입장도 함께 실었다. 전통적인 불교에서 벗어난 지성불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불교의 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재가불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도 진행했다.

이런 까닭에 과연 불교평론이 20주년을 맞아 여는 심포지엄의 주제인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 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홍사성 편집인은 이번 주제 선정에 대해 "현대사회는 과학의 진보와 물질문명의 발달, 지식정보의 대량유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교의 위상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불교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계 학자들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지점을 진단했다. 먼저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종교에서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동시적 전개' 발표를 통해 "근대사회의 변화는 더욱 더 합리적인 사회유형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초자연적인 것의 위축과 쇠퇴를 의미한다"며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종교인구가 줄어든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다양한 종교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종교가 해야 할 일은 현대 종교성과 종교적 욕구에 맞게 종교 자신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은 '탈종교 시대, 그리스도교의 탈-향 운동' 발표를 통해 기독교계의 움직임과 과제를 전했다. 정원장은 "시대정신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역행하는 일부 한국교회는 사회서 배척될지도 모른다. 시대정신을 잃은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개신교 내에서는 탈성직, 탈성장, 탈성별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개혁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탈종교적 신행행태와 미래' 발표를 통해 "탈종교화 같은 변화는 큰 위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발전 기회다. 현대인 관심사가 건강에 집중되며 음식과 명상에 대한 관심도 커져 사찰음식과 불교명상이 각광을 받는다. 탈종교화 시대에서 불교 미래는 신앙 중심의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시대 이슈 불교계 과감히 접목
지식사회 불교 잇는 가교 역할
20주년 주제 '탈종교화 불교'

젊은 세대 인식 변화 지적
개신교계 대응 현황도 참조
"분야 맞춤형 포교 접근 필요"

김 교수는 무엇보다 새로운 불교신행 형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불자들과 일반시민들이 불교를 접했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각 분야별 전문포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연령별, 직능 포교프로그램과 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 등 분야의 맞춤형 접근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명법 스님의 '탈세속화 시대, 붓다를 사유하기' , 이혜숙 금강대 교수의 '시민사회 공론장 확립을 위한 불교의 역할' , 이상헌 서강대 교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 , 양형진 고려대 교수의 '현대과학기술문명과 불교의 역할' 등도 발표됐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은 "시대가 불교에 요구한 다양한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불교계 안목을 새롭게 열고자 했다. 다양한 논쟁에서 항상 완벽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국토 향한 출가수행 원력 다짐" 조계종 예비 스님들이 정규교육을 마치고 출가수행자로 거듭나 불국토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조계종 제57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이 8월 29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회향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총 76명(남53 · 여23)이 참가했으며, 사미 1명을 제외한 전원이 5급 승가고시에 합격했다. 사진은 수계교육에서 사미 · 사미니들이 합장호궤하고 각자의 발심을 되새기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조계종 교육원

BBS불교방송 사장 공모로 재추천한다

선상신 · 최윤희 후보 사퇴… 공모 일정 추후 논의

BBS불교방송 사장 복수후보로 추천된 선상신 현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이 후보 사퇴함에 따라 차기사장은 공모를 거쳐 추천한다.

BBS사장의 후보추천권을 갖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8월 23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재단사무실서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추천에 관한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이각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6인이 참석했다.

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불교방송 사무국을 통해 앞서 추천한 선상신 · 최윤희 후보의 사퇴 소식을 전해들었으며, 차기 사장후보는 공모를 거쳐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공모는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 추천인의 추천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 일정은 불교방송 측에서 사장 후보에 대한 재추천 요청을 받은 뒤 논의하기로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다 많은 인재들이 불교방송 사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자격의 문호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은 불교방송 차기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경영계획서를 받지 않고, 기존 관례인 후보검증위원회 등을 따르지 않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장은 "관례를 따랐다면 오해를 받진 않았을 것 같다"고 사실상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외부공모는 부정적"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불교대학 운영백서, 11월 발간

포교원 현장 청취 진행, 70여 불교대학 설문조사도 담겨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11월 신도전문교육기관(이하 불교대학) 운영방법을 비롯해 각 불교대학의 성공 노하우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펴낼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8월 22일 천안 각원사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 화계사, 울산 정토사, 김천 직지사, 진불선원, 참좋은우리절 등 7개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운영 현황 파악과 활성화 비결을 청취를 실시했다.

조계종 신도 양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불교대학은 신도기본교육 다음단계로 연간 96시간 이상의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2011년 통계 집계 후 졸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수강생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7년 불교대학 설립 자격조건을 완화한 신행불교대학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운영매뉴얼은 활성화된 불교대학 사례를 통해 전체 불교대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불교대학 7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현황, 교과목 선정, 강사 섭외, 수행과의 접목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실린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9월 내 활성화 된 곳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포교 전법, 신도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불교대학인 만큼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진행된 간담회서는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과 이동선 신도팀장 등이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과 이영철 각원사 신도회장, 윤학명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만나 불교대학 운영 현황을 들었다.

각원사 불교대학은 2002년 조계종 인가 이후 올해 18기 신입생을 받는 등 불교세가 약한 천안지역에서 포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습니다



▶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비구니스님들의 인재육성과 활용방안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항상 열려있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 세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입후보자 본각

■ 투표일시 및 장소 : 불기2563(2019)년 9월 18일(수)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